朝鮮日報
夕刊
二十五日(日)
本紙朝夕刊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崔台進

社說
現實과 理想
—中正한 調節이 必要—

一

最近 數年來 世上의 風潮는 健實히 變하엿다。 그것은 現實에 對한 極度의 近眼主義다。 걸핏하면 現實을 부르짖고 우연직하면 時勢를 따르는것이 普通이다。 黃金萬能主義, 權力附從主義, 이것이 世上의 大勢다。 아니 理想을 말하고 節操를 말하는 이를 嘲笑하고 黃金과 權力에 가까히지내는것을 마치 無上의 光榮같이 생각하는것이 近代의 風潮이다。 商人, 企業家等이 職業上 關係로 追逐됨은 不得已한 일일지도 모르나, 발릇이 그럴 理由도 가지지 안흔 敎育者, 科學者, 그리고 從來 世上에 仁人志士로 自處하든 一部人士들조차 그러함을 볼때 에 오히려 意外의 感을 不禁한다。

二

實로 過去의 形便을 보면 너머도 今日의 그것과 懸隔한데 놀라지 안흘수 업다。 過去의 靑年들에게는 理想이 잇섯다。 그리고 그것을 實現 하기에 거이 盲目的이엇섯다。 健康과 家庭과 社會的受難을 念頭에 안두고 오직 民衆과 더부러 苦樂을 가리하얏다。 그들의生活은 希望과 理想속에 살앗고, 現實的 利害와 瞬間的享樂과 外面的 權勢를 追隨하지안헛다。 그들에게는 節操도 잇섯고 氣品도 잇섯고 그리고 仁人 志士로서의 權威와 體面을 持保하얏섯다。 이리하야 社會的理想과 社會的 權威도 倂進할것이 아닌가。

三

社會全般의 風潮가 激變한 理由에는 全然 首肯할만한 情勢가 업는것은 아니다。 滿洲事變以後 極東에 잇서서의 政治的 經濟的 情勢는 一變 하얏다。 아니 나치스獨逸의 出現後 歐州의 情勢도 突變하얏다。 國際主義, 平和主義는 退却하고 國家主義, 强權主義는 膨脹하얏다。 그 世界的大勢에 順應하라면 從來의 모든 理想, 모든 因襲이 一大衝突에 逢着할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理想과 現實을 너무도 調節치 못하고 一方에 오즉 偏倚한다면 그것은 個人의 良心으로보나 社會의 權威로 보나 잇슬수업는 일이다。 우리는 過去와 現在를 도라보아 너무도 追隨主義, 他從主義로 다라나기 때문에 恒常 나를 일허버리고 잇지안흔가。

四

個人이나 社會나 理想은 잇서야한다。 그러나 理想을 一朝一夕에 實現하는데에 無理가 잇다。 또 現實을 忘却해서도 안된다。 그러나 現實에 얽메이어 個人人, 그社會는 何等의 成果를 엇지못하고 만다。 그러므로 누구나 刹那主義, 近眼主義로 갈게 아니라 久遠한 理想을 가지는 同時에 現實을 無視치 안는 哲學을 가저야한다。 우리는 이런 點에서 보아 너무도 最近의 理想에 偏倚하고 現實에 얽매어 그 中正한 調節을 일흔것을 크게 遺憾으로 한다。 社會의 進展은 兩者의 中正한 調節로써 完全을 期할수잇다。 이런意味에서 吾人은 最近에우리社會의 風潮를 警戒하고 憲氣를 提唱하는바이다。

獨墺匈伊四個國
新파쇼뿔락結成!
蘇聯과의正面衝突거의不可避
歐洲大戰前情勢再現

【巴里二十四日發同盟】葡萄牙政府가 敢然西班牙人民戰線과 斷交宣言을 發한데뒤니어 히틀러 總統이 獨自의 外交手段을 發揮하야 伊太利政府의 에디오피아 合倂을 承認한 結果 歐洲國際政局은 바야흐로 大戰以來의 重大轉期에 直面하게되엿다 이미 葡萄牙政府가 西班牙와의 外交 關係를 斷絶한데 미처 獨, 伊, 葡三國政府가 提携하야 西班牙 叛軍 政權을承認하는 措置를 取하리라 豫想되는데 다음에는 獨, 伊兩國政府가 公公히 西班牙新政府에 武器를供給할수잇게되여 카탈로니아赤色政府를 支持하는蘇聯政府와 正面衝突을 演出하게되리라고 觀測되다 一方 獨逸政府가 敢然 『侵略의成果』를 承認한結果 『現情維持派』가 金科玉條로 역이는 不承認政策은 玆에 急角度로 崩壞의域에 入하리라고觀測되다 獨逸政府는 今回의行動에 關하야 特히

一、獨逸政府는 全然 自由意思에 基하야 에디오피아帝國合倂을 承認한데 不外하다

一、右承認에 對하여는 伊太利政府로부터 何等代償을 期待치안는다

는것을 强調하는데 獨伊兩國政府가 政治經濟의 全分野에 亘하야 緊密한共同戰線을 確立한것은 特히 過剩人口의處置地와 原料資源의再分割을 要求하는 點에잇서서는 完全一致되여잇슴으로 獨逸政府가植民地再分割을 提議할 境遇에는 伊太利政府는 欣然協力支持를與하리라고 보아 歐洲政局은 獨墺匈伊 四國에依하야 新뿔럭을 結成할것으로써 大戰以前의 外交地圖를 再現하게되엿는데 大戰 以後 十餘年 歐洲政局을支配한 所謂 베르사이유 體制도 맛쇼나치스政局의 進歉的外交政策下에 全面的 崩壞危機에 逢着하엿다할것이다

獨伊兩國間에
完全諒解成立
伊外相챠노伯談

【伯林二十三日發同盟】伊太利外相챠노伯은 二十三日午後獨逸外相노이라트男과 會談한結果에對하야 左와如히 말하엿다 노이라트外相과의 會談에依하야 獨伊兩國間에 完全한諒解가 成立되엿다 그러나單純한 口頭의 約束으로 條約이라든가 同盟이라는것은 안이다 余는 二十四日벨히스가데市에서히틀러總統과 會見하고 노이라트外相과의 會談內容을 傳하야 總統의承認을求할려이다 챠노伯은 特히 諒解內容에對하기를 避하엿다 傳한다

一、獨伊間의 平和를促進할것

一、獨伊兩國이 共産主義에對하야 共同戰線을베풀고 西班牙에잇서서는 팟시스트政權以外의政府를 承認치안흘것

佛政府首腦不安

【파리二十四日發同盟】急進社會黨은 二十三日 피아리츠에서 大會를 開催하고 달라디에 國防相 에리오下院議長等의 領袖도 參集하야 二十三日夜半葡萄牙政府가 西班牙와 國交斷絶를 行하고 蘇政府도 不干涉委員會를 脫退하리라는 情報를 接受하고 極度로不安에싸여잇다

佐藤少佐等戰死

【奉天電話同盟】二十三日午前四時三十分 北滿三江省北方○○에서 匪賊討伐中의 佐藤部隊 一部少佐(長野縣出身)中尉(滋賀縣出身)近藤悅次 上等兵은 名譽의戰死를遂하엿다

世界消息

日中交涉難航

川越大使와 張群部長의 五次會談에 目한 日中交涉은 北中特殊化問題와 防共協定問題를 中心으로 兩者間에 意見이 完全對立되여 마참내 停頓狀態에 陷入하게되엿다 川越大使는 有田外相의 最後的訓令을 請하기 爲하야 須磨領事를 急遽歸東케하엿는데 二十四日 東京에 到着한 同領事는 外務省을 爲始하야 陸海軍當局과 充分協議를 遂한後 即時 歸任할터인바 同領事가 携行할 重要訓令은 日中交涉의 將來를 決定할 重要性을 가지리라한다

葡西國交斷絶

西班牙內亂을 中心으로, 獨伊葡三國對 蘇佛兩國의 衝突이 尖銳化하야 前者는 叛軍을 後者는 政府軍을 積極的으로 援助하고 잇는 事實은 公公然한 秘密로 되여잇거니와 蘇聯政府가 西班牙內亂不干涉協約破棄態度를 表明하고잇는 此際 葡萄牙政府는 二十三日 西班牙政府에 對하야 國交斷絶을 決定하는 同時로 目下 알리칸테港에 碇泊中인 마드리드駐箚代理大使에게 任地撤回를 命하엿다。

獨伊共同戰線

伊太利外相챠노伯의 伯林訪問은 世人의 注目을 集中하고잇드니 消息通이 傳하는바에依하면 獨伊兩政府間에 歐洲政局全分野에亘하야 緊密한 共同戰線을 確立하게되엿다한다 그內容은 一、西歐로부터 共産主義를 排擊할것 二、西班牙叛軍을承認하는同時에 國際에잇서 사베드政府實現을 阻止할것 三、로카르노會議에 蘇聯介入을 反對할것 四、中歐에잇서 獨伊兩國政府는 各自國의 勢力範圍를尊重할것等이라한다

蔣氏西安向發

蔣介石氏는 二十二日 南京으로부터 飛行機로 西安에 到着하야 張學良氏를 爲始하야 陝西甘肅寧夏各省의 將領을 招致하고 過般杭州에서 北中五省代表와 北中對策을 協議한結果에 關聯하야

一、抗日戰線의强化

一、實際政權은 國工作完成

에對하야 重要 指示를 못할模樣이라하는바 川越張群의 當面交涉이 重大難關에 逢着된此際 蔣氏의 最近動靜은 去益 注目되여잇다

不干涉會決裂?

英國外務省은카르노黨에서 열린 西班牙內亂不干涉 委員會는 蘇聯代表가 指摘한 獨伊兩國의 叛軍援助事實과 이에對한 獨伊代表의 逆襲的反駁으로 兩代表間에는 白熱的論戰이 展開되여 重大波瀾을 孕胎하고잇는데 二十三日 同委員會는 마침내 獨伊葡政府의 協定違反三件 伊太利政府의 違反一件을 認定하고散會하엿다 그러나 蘇聯 政府가 新通牒과 行動의自由를 留保한結果 委員會는 事實上 決裂狀態에 陷하여잇고 政府에在한左右兩黨의 對立은 더욱 尖銳化하게되엿다

印回兩敎徒衝突

十八日 봄베이市內에서 印度敎徒와 回回敎徒間에 衝突事件이 發生하야 死者四十五名 負傷者五百名을 내인 慘事를 惹起하엿다 봄베이州政廳은 事態의 重大性에 鑑하야 即時軍事警備令을 宣布하야 秩序回復과 治安維持에 努力하고잇다

蘇外聯이에通達

【倫敦二十三日發同盟】蘇聯代表마이스키大使는 二十三日午後不干涉委員會 議長프리마드빌卿에게 正式通牒을 提出하야 蘇聯政府는 西班牙內亂에對하야 『行動의自由』를確保한다는 旨를 通達하엿다

로承認할旨를 言明하엿다 이에對하야 치아노外相은 伊太利政府를代表하야 謝意를表明하엿다

伊國의에國合倂을
獨正式承認決定
치아노氏와獨首腦會見結果
不承認의原則遂崩壞

【羅馬二十四日發同盟】伊太利政府는 二十四日午前 獨逸政府가 伊太利政府의 에디오피아帝國併合을承認한旨를發表하얏다

【伯林二十四日發同盟】伊太利政府의에디오피아帝國倂合에 關하야는 聯盟各國政府가 所謂不承認政策을 堅持하고 事實上無視하고잇는데 伊太利外相 치아노伯은 노이라트外相히틀러總統과의 會見結果 獨逸政府는 敢然伊太利政府의 에디오피아帝國合倂을 承認키로決定하얏다 從來엔 匈牙利政府도 羅馬協定의 主旨에基하야 『半官的』으로 에디오피아의 倂合을 默認하고잇섯는데 公然히 『侵略의成果』를確認한것은 實로獨逸政府가最初이다 過般聯盟總會에서 에디오피아代表의資格이 公認되여 事實에 徹하여도 聯盟各國政府는 依然히不承認政策을 固執할수밧게 업는데 『現實』을 基調로한 獨伊兩國政府의 共同戰線아래 스펜스·來國務長官의 名義로서 알녀저잇는 現狀維持原則도 漸次崩壞될수밧게는업는듯하다

不干涉崩壞되면
左右對立激化

【倫敦二十四日發同盟】不干涉分科委員會席上 蘇聯代表카한參事官은 蘇聯政府의 新書翰의 眞意에對하야 本國政府에 照會할旨를 公約하엿다고 傳하는데 蘇聯, 西班牙兩國政府가 不干涉協約案을 破棄할境遇에는 歐洲政局은 非常한 紛糾狀態를 나타낼것으로 念慮된다 蘇聯政府는 西班牙政府崩壞後도 依然카타로니아 自治政權을 支持하야 人民戰線의確立을 企圖할 方針이라한다 他方獨、伊、葡三國政府가 西班牙革命政府를 承認할것은 거의旣定事實로 보인다 따라 左右兩國家群이 西班牙國內에서 各各別個의 權을 承認케되면 이에國際法上空前의 新事態를 誘致케될것이다 不干涉委員會 崩壞의境遇 聯盟理事會를 急遽召集하야 對策을 檢討할 意見도 擡頭하고잇는데 英佛兩國政府는 어데까지 不干涉協約案의 存續을 期하고 西班牙海港管理의 對策을 提示하고蘇聯代表說服에努力하고잇다고傳한다

歐洲事態急迫으로
緊急理事會招集

【쥬네브二十四日發同盟】蘇聯政府의 不干涉條約廢棄聲明은 國際聯盟當局에 異常한 衝動을 與하야 嚴重事態의 推移를 注視中인데 주네브駐箚各國代表도 마치내 西班牙內亂이 歐洲左右兩派對立으로 重大危局에 逢着하 지안흘가 念慮하고잇는데 蘇聯政府又는 西班牙政府의 要請에 依하야 最近에 緊急聯盟理事會를 召集하고 未曾有의 事態收拾에 努力하지안흘가 觀測되는듯하다

米穀自治法發動
거의確定的

【東京電話同盟】今年의 米作은 昭和八年以來의 大豊作으로 六千七百萬石이 豫想되여 理想持越高를 除하여도 아직 四百九十萬石의 過剩米가 豫想되고 待望의 自治管理法發動은 確定的이 되여잇는데 그時機에 對하야는 主로 今後의 米價의 推移에 依하는 同時에 新公定米價決定에는 微妙한 關連을 가지고그 豫想은 困難하다 그리고生產者인 農民及 市場方面에서는 이 時機가 언제되는가하는데對하야 非常한關心을 가지고 農林省 米穀局에 對하야 管理法發動의 時期照會가 頻頻히 殺到하고 잇는 形便인데 新公定最低米價決定은 重大關係가 잇슴으로 오는 二十日頃이 아니요 新公定米價가 決定되는 十一月中旬頃이 될것이다 그리고 最近의 米價는 端境期에在한 市場持越의 窮屈과 產地에在한 自治管理發動氣勢에 依한 賣惜에依하야 大豊作이傳함에 不拘하고 오히려 多少騰勢의 氣味까지잇서 出廻期에이르러도 그리 低落할것 갓지안코 一般이 豫想하는 十一月下旬에 이르러 自治管理의 發動條件에 米價가 내릴넌지 안흘넌지 자못 疑問視되여잇다 또 十一月中旬頃決定될 新公定米價의 最低價格이現在의 最低價格보담 高値로決定되는가 低値로 決定되는가는 管理法發動의 時機에 자못緊密한 關係를有한것으로現在보담 最低米價가 高値로決定되면 問題는 업스나 萬若豊作에依한產米低減에 現在보담 下値로決定되면 農民에게多大한損害를與함으로 結局自治管理法의發動時期는 一般의 豫想보담도느저저 十二月中旬頃이될듯하다

御召艦神戶御入港

【神戶電話同盟】去二十一日横須賀御發航 멀리 黑潮洋上에 御旗를 날리압시고 風浪中에 海軍特別大演習을 御統監하압신大元帥陛下께압서는 다시 海軍兵學校卒業式行幸과 演習의 終幕을 裝飾할 特別大演習觀艦式御親閱을爲하압서 軍艦比叡에타압시사二十五日神戶에 御入港하시압섯다 朝來快晴爽凉의 微風六甲摩耶의 連峰은 錦繡에 映하야 絕好의 ... 이날御召艦比叡 ... 艦首旗 히 秋陽에 天皇旗를 나비끼압시면서 供奉의 驅逐艦白露時雨의兩艦을 ㅅ느리압시고和田岬沖에 勇姿를 나타내시여 在泊全艦의 登舷禮와 殷殷한 皇禮砲울리는中에 午後一時神戶港에御入港하압시엿다 奉待하옵는 岡田兵庫縣知事 勝田神戶市長 元尾神戶稅關長等은 直時 汽艇으로 比叡에 伺候 天機를 奉伺하엿는데 陛下께압서는 今回는 御上陸하시지아니하압시고 同夜는 艦內에御入港御第一夜를 지내시압고 二十六日早朝 愛宕에 御移乘하시압서서 海軍兵學校 卒業式臨幸을 爲하시와 江田島에 向하압실 御豫定이압시다

演習作業終了
◇…海軍省에서發表

【東京電話同盟】廿五日 午前十時 海軍省發表 昭和十一年 特別大演習은 昨日로써 演習作業을 終了하고 御召艦比叡는 本二十五日 午前十時十五分 友島水道通過 午後一時 神戶御入港의 御豫定으로 演習部隊는 本日中 阪神沖에 入泊할 豫定이다 去八月 特別大演習開始以來全軍將士 專心鍊武에 努力하고 我國現下時局의 重大性을 痛感하야 眞摯하게 努力을 거듭하고잇섯는데 그終期에잇서 大元帥陛下御統裁下에 本洲南方洋上에 在한 作戰演練을하야 士氣더욱 떨치고 遺憾업는 成果를 收得하야 이제는 全艦隊阪神沖에 集結하야 觀艦式盛典을 마치하려는터이다 大元帥陛下께옵서는 去二十一日御召艦比叡에 御乘艦橫須賀御出航以來艦內의 御不自由를 不拘하압시고 終始親히 演習을御統裁하압서 御精勵하압심은恐懼感激에견될수업는바 天機는 御麗하압시다

朝滿互惠關稅設定
朝鮮側委員絶叫
產業經濟調査會의最後의論戰

日滿一體强化下에 地理的, 資源的重大使命으로써 日本經濟圈의 一單位로서名實共히國際經濟의 勝者가될라는 命題를主眼으로내세운 朝鮮產業經濟調査會는 二十四日幾多의成果를 엇고 閉幕하엿는데, 그閉幕直前에 日滿一如 朝鮮滿洲 依存深化의 具體化에 重大計劃를 與할 緊急動議가 提出되여 會議는 一層緊張을 呈하엿다한다 即朝鮮側委員으로부터 特別議題로써 鮮滿洲間의互惠關稅協定設定의件이 提出되여 朝鮮民間側委員은 一致하야 이에贊意를 表하야俄然大論戰을 展開하엿는데 對滿貿易에잇서 朝鮮이 地理的으로 對外貿易中七割까지나 가지고 率先하야 朝鮮滿洲經濟提携의緊密化를 圖하며 現行과가튼 高率關稅는 兩者의 貿易에多大한 支障을招來하야 瀨瀨한 商機 其他經濟에依하야도 明白하니 調査會는 前進하야朝鮮滿洲間의 互惠關稅設定을要望할것이다 고하고 이에對하야 當局은 問題가 자못重大性을 帶함에鑑하야 그意는 充分參酌하기로하고 今後의硏究課題로 근 模樣인데 이朝鮮民間側委員의 提唱은 會議를通하야 重要產業統制法其他各部門에서朝鮮의地理的資源的重要性을 强調한日本內地及 滿洲側委員의 論議에서 一步를 前進하야 堂堂한 論陣을 떠것인데 會議掉尾의 論戰인 同時에 그提唱은 形式的으로는 明文化되지안혓스나 意가 存在한바는 充分參酌된 形態이므로 今後 모든 機會에 朝鮮內實業界에 促進唱導될것으로 注目되고잇다

蘇聯脫退阻止에
英佛眼鼻莫開!

【倫敦二十四日發同盟】蘇聯政府는 不干涉委員會에對하야 『行動의自由』를回復한다는旨를 通告하엿는데 代表카한參事官은 二十四日午後 分科委員會散會後 左와如히言明하엿다 蘇聯政府는 當分間不干涉委員會의議事에 協力하면서 形勢를 觀望하겟다 一方 英佛兩國政府는 蘇聯政府의 脫退阻止에 汲汲하고잇는데 結局 武器禁輸의實効를 期하기爲하야 西班牙海港의 監視를 提議하리라고 觀測되여다

獨總統伊外相과會談

【베르히테스가-덴二十四日發同盟】히틀러總統은 伊太利外相 치아노伯과의 會見은 노이라트外相同席下에 午前十時부터 開催되여 午餐을함께한後 午後三時까지 續開하얏는데 會談後左와如한 正式콤뮤니케가 發表되엿다 히틀러總統은 二十四日午前노이라트外相同席下에 치아노伊外相과 會談을 遂하엿다 席上히틀러總統은 伊太利의 에디오피아帝國倂合을 公式으로

日曜氣配

▲期米＝捲下가업는 模樣임으로 當限에 小口踏氣 受渡되잇스나 一方强氣의 受渡도 極히 消極的임으로 受渡高는 一萬石程度에 그칠模樣 曉値待에 場面實物薄하야 氣配手堅 萬若捲下가업스면 新米買上 數量도 增加되지안코 또 期日도 느질터임으로 目先은 큰高値는 困難視되여잇다

▲株式＝外交關係로부터 政變懸念一掃와 歐洲政局惡化에 警過한 新東으로부터念慮 아직도 整理不充分하나 인프레樂觀에 買氣强 氣配順

大新 一三四·〇〇 東新 一三六·〇〇
日產 九〇·〇〇 鐘新 一六〇·〇〇

各地晴天

本社參觀(廿五日)

▲新明學校 生徒六十一人 宣禹烈氏引率下 二十四日本社見學

人事·集會

▲木村亦八氏(慶北警察部 高等警察課長)廿五日午前十時五十分京城發赴任

▲崔德奉氏 北鮮고무株式會社創立人事次來社

▲劉和文氏 同上

八面錄

◇葡萄牙는 西班牙에 國交斷絕을宣言。 蘇聯은 『行動自由保留』를聲明。 獨伊墺匈은 共同戰線을劃策。

◇맛쇼對 人民戰線의 國際的對立은 一觸卽發의 危機。 이것으로歐洲政局은 大戰以前情勢를再現。

◇蘇聯의 强硬的通告에 놀난 不干涉委員會 只今에와서야 西班牙海岸 監視를 提議한模樣이라고。

◇伊에紛爭에 失敗한 英佛이獨伊蘇를 東都하는것은 넘우나 大膽한일。

今日本紙四面

科喉咽鼻耳
醫學博士 永日美
京城仁寺町一三七 電光二六六五番
備完室院入

姙娠부터 出産까지
愛川하십시요
どりこの
專賣特許
入院 妊娠中의 食物은 ... 母體의 豫防과 胎兒의 發育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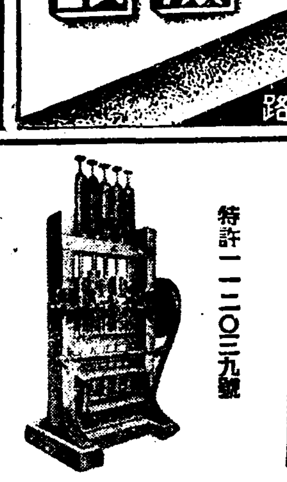
參茸ドニク
補血强壯劑
五圓·二圓八十錢
京城鐘路三
慈善堂製藥株式會社

眼鏡은 東亞醫院
專門 檢眼
眼科齒科
京城 鍾路 電光二—四六八〇番

恩給
長期低利立替 新件及借換共極有利 酬應地方人士 는乞照會詳細答
京城授恩町一六〇 鄭商會

◎支局募集 (月紙代 一圓二十錢)
(三) 朝報案內
(三)本社規定書送呈합 鐵道便手形送하시면 市內京城府林町八二 番地
配達募集 保證人 本人來談 京城中 居住者로要함
中央時報社
電話本局 四三一四 二五番
振替京城 五三二番

地下에埋藏된黃金은簡單한砂金試掘機로!


特許一一二〇二九號
新案二二七二四〇號

新案二三二二七號
京城府中林町 電話本局 三六八番 四四三
朝鮮鐵工所

간질
엔秘方(카사루)를 시요특효가업스면 가시고 반금키로 ...
京城鐘路四丁目 日光製藥社

野談
十一月號 通卷第十二號
十月二十六日發賣
定價 一個月二十錢 五個月九十六錢 十個月一圓八十五錢(以上送料並)
支分社大募集
京城鍾路二의四五
振替京城一八三八
野談社
(一) 月老繩다시이어 ... 金東仁
(二) 狂詩客金笠 ... 車相瓚
(三) 三十年의喜心 ... 琴童
(四) 저주바든都市 ... 任英彬
(五) 中國神話 ... 金伯岳
(六) 黃山野의義血 ... 尹文鎭
(七) 죽음을차자서 ... 趙天吳
(八) 全譯三國遺事 ... 元翁譯
(九) 五龍의아비 ... 延星欽
(十) 最近六十年秘錄 ...

古代篇
朝鮮文學全集
全十二卷
第一回配本
第二回配本開始
再版 時調集
內容見本進呈
今日出來 小說集
每冊八一錢 送料
京城安國町一五三
中央印書館
振替京城二一五七九 電話(光)二一五九

朝鮮日報 江華支局 電話三一番

榮譽의五名入賞
一等은文學準君(社長賞)
新人三名에再選二名으로
本社音樂콩쿨大團圓

寫眞說明 上은 一等賞과 社長賞을탄 文學準君 右下로부터二等의李在玉君 李仁範君 左下로부터 韋永恩君 南宮堯高君

提琴部
一等賞 文學準君(再)付社長賞
二等賞 李在玉君(新)

聲樂部
二等賞 李仁範君(再)
同 韋永恩君(新)
同 南宮堯高君(新)

음악콩쿨대회의 심사는 대회가 끗난뒤 곳본사귀빈실에서 심사위원회를열고 각위원의 엄정한 채점을가지고 신중한협의를한결과 각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야 아래와가티 결정을보앗다 그결과 바이올린 일등상은작년에입등하엿든 문학준군이 다시차지하고 성악에도 이등세명중 작년 이등상입상자 리인범군이 다시 입상된외에는 바이올린에 이등상의한명 성악이등상에 두명이 각히새로입선되엿다 그리고 바이오린일등의 문학준군은 본사사장상을 주기로 심사위원회에서 추천되엿다 안영희(安英姬)(二三)는 「지프테리아」로 순화원(順化院)에 수용되엿다

"昨年水準보다越等한 收穫을欣喜不已"
—今日賞狀과副賞을授與—
面面喜色의入賞者들

별항 본사주최 제이회 음악경연대회의 심사결과가 발표된 이십오일 오전 본사귀빈실에서 심사원제씨의렬석과 입상자일선자의 출석으로 시상식이잇섯다 된 식장에 외래인사와 본사원들이 모인자리에 본사편즙국차장 함상훈(咸尙勳)씨로부터 시상식개회를 선언한후 본사장방응모(方應謨)씨로부터 날로자라는 우리음악문화에 공헌이잇기를 바래서 이대회를 열은지 제이회에대성황을 일운가운데 작년보다 더욱나은 수준미테 더훌륭한 여러분의 입상자를 발견케되것은 크게 깁븐일이다 라는뜻으로 개회사를한다음 입상자의 상장수여가잇고 부상으로서는 일등엔 금백원에사장상 일백원을 겸하여수여하고 이등에는 각오십원의 부상을수여하엿다 그리고 본사주필 서춘(徐椿)씨로부터 우리악단의 개척을 위하야 우리음악콩쿨이 변변발전하여 감은 극히 반가운일이다 압흐로 여러분이 더욱 힘써서 우리악계에서 세계에자랑할만 한대음악가가 배출하는것도본 콩쿨로부터나기를 밋고바란다 는 대회입상자 입선자들에게 격려사를보내고 다음에 심사위원을 대표하야 홍란파(洪蘭坡)씨로부터 여러분은 이번입상을 긔회로 일층 분발하여 오늘의 입상을 떠욱빗내도록 금후대성하기를바라는 동시에 입상으로못되엿섯슬지언정입선되엿든여러분도 이번대회에서 천분만은 대성할수잇슬리라는것이 인정되것인만큼 천품에 아울러노력을다하여 역시대성의 날이잇기를밋고 부탁하는바이다 라고 일장의설시가잇섯다 다음에입상자를 대표하야 문학준(文學準)군으로부터 간단한 답사가잇고 시상식을 맛치엇다

◇榮譽의 音樂콩쿨入賞者 施賞式 光景

送電線에落雷!
長津水電故障의原因
물이氾濫、人畜死傷、民家浸水

【함흥】장진강수력전기(長津江水力電氣)의 고장으로 말미암아 이십사일밤에 서북지방에는 약 두시간반동안이나 정전이되여 암흑천지가 되여버렷는데 이십오일오전에 함남경찰부장으로부터 경무국에 보고한바를보면 이러하다

이십사일오후 아홉시쯤에 장진강수력전기 제일발전소(第一發電所) 송전선(送電線)에 벼락이 떠러저서 그발전소가 더머짓스므로 발전을 정지할양으로물을 정지시키엇든데 락수(落水)가 철관(鐵管)에 역류하야 일부가 파괴되고 상부의 물통이 넘어서 일하고잇든 로동자네명이 행방불명 되엿다 그가운데서 한명은 시체로나타낫스나 세명은 그냥 행방불명이다

그리고 부근가옥들도 류실된 모양인데 아즉 자세한 상황은 알수업다 하류의 「이블라인」전로도 역시백미돌가량 류실되엿다 회복하기까지에는 사흘가량 걸릴 모양이다 송전은 부전강(赴戰江) 수력전기로서 하고잇스므로 지장이 업다 물이 너머기때문에 산기슭에 잇는 경비전화선의 전주 세개가 떠나려가버려서 전화가불통되엿든바이십오일아침 일곱시에 복구되엿다한다 이수재로말미암아 이십사일밤에 서조선방면에는 약두시간반이나 전긔를 보내지못한 것이라한다 손해정도는조사중이다

上往十里에傳染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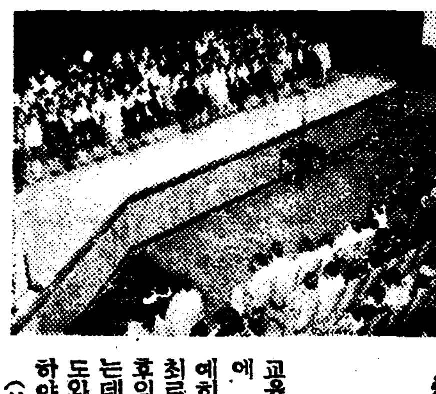
이십사일 오후열시경 상왕십리정(上往十里町) 칠백사십일번지

籠排球由來를 말하는"도"博士
東洋視察途中에京城來訪

미국마세츄세스주의 「스프링필드」에 잇는 세계긔독교청년회(Y·M·C·A)대학 명예회장인 로렌스·엘·도겟트(七三)박사는 동양시찰도중 작이십사일 입경하야 조선중앙긔독교청년회 명예총무 「바하ー든」대에 투숙하고잇는데 동씨는 사십년간이나 대학학장으로 근무한 로교육가로서 동대학에서 지금은 세계적운동경기로 성행하는 롱구(籠球)와배구(排球)를 처음으로 시작하엿다한다 이십오일 조선호텔로 오찬회의 「도켓트」씨를 왕방한측 긔자에게 다음과가티말하엿다

나는 동양에대하야 만흔관심을 가젓는데 명년일월인도(印度)에서 긔독교청년회 세계대회를 긔회로하야 일본 조선 중국의긔독교청년회사업시찰하게되엿고 회를 엇게된것은대단히기쁜일이다 우리대학은세계에 오즉하나뿐의것으로 조선에서도 구자옥(具滋玉) 최승만(崔承萬)등제군이 우리학교에서 교육을밧은 사람이다 사실 당신이 말하는바와 가치 「빠스켓볼」과 「바레볼」은 우리학교에서 처음에 실내유희로 시작하엿든것이 점차 발달 변화되여 현재가티 세계적 경기의 하나이 되것을 생각하면 감개무량하다 우리학교에서는 YMCA의 지도자와 체육 전문가를 양성한다 「빠스켓볼」은 일천팔백구십일년에 우리학교교수인 「제시 네이스미스」씨가 고안한것으로 처음에는「도ー」를 노흔바구니를달고 그것으로 빠스켓볼이라는 일홈이붓처젓다 「바레ー볼」은일천팔백구십일년에 「몰칸」이라는 학생이 고안한것인데 처음에는쌍방에 열한사람씩 잇서하든것을 넓은장소가필요하기때문에 아홉명으로되엿다 동씨는 압호로잘일간 이곳에서 더체류한후에 바로 하르빈으로 향할터이라한다

(사진은 "도"박사)



敎育勅語下附 記念學藝會
府民館에서

교육에관한 칙어(勅語)를 조선에 어하부 이십오주년기념 학예회(學藝會)를 경성부교육회주최로 금일부민관에서 오전과 오후의 두부로 난호아 거행하엿는데 경성시내 남녀중등학교생도와 보통학교 소학교도총동원하야 매우성황을 일우웟다 (사진은 동덕녀자고보의합창)

慶州讀書會事件 被告全部體刑求刑
辯護人은無罪를主張

【大邱】경주독서회(慶州讀書會) 피고 리칠성(李七星)외 여듧명에 대한 속행공판은 이십사일오후한시부터 대구복심법원 제삼호법정에서 개정하고 류원(柳原)검사로부터 일심과가티 최고삼년、최하 일년의 구형이 잇섯스며 변호사 손치은(孫致殷) 률산(栗山) 리창혁(李昌赫)제씨는 피고전부에대하야 무죄를 주장하엿다 그리고 피고의 구형은다음과 갓다

李七星 懲役三年
李致璐 同 二年
崔秀峰 同 二年
孫東昌 同 一年半
孫鳳鎬 同 一年半
孫望翼 同 一年半
崔明杓 同 一年
金孝出 同 一年半
金永高 同 一年

發電所에서 四名死傷

【淸津支局特電】이십사일 오후다섯시이십오분 대흥전긔회사(大興電氣會社) 발전소 가마속에서 일하든 인부가 일을하다가 실수하여 끌른물을뒤집어쓰고 한명은 즉사、생명이위독한 사람이 세명이다

失踪된"트럭"
蓬萊橋近傍에서發見

이십오일 오전한시경 시내남서에 대문통(南大門通)사정목 오십륙번지 조선석유회사(朝鮮石油)운전수 송재운(宋在雲)(二七)의집에 두어든 그회사화물자동차「포ー드」삼십삼년식신품 경(京)오천백삼십이호를 어떤자가 훔처간것을 집안사람이 발견하고 곳소관본정서에 계출하는동시 그자동차의 행방을 수사한결과 가튼여섯시경 봉래정(蓬萊町)사정목 봉래교(蓬萊橋)근방에 두고다라난것을 발견하엿다 이와갓튼 화물자동차도란사건은 조선초유의 범죄이니만큼 그서에서는범인을 엄탐중이라고한다

四十餘勇士參列한 劍道戰白熱
朝鮮武道館鄭君이首位

朝鮮體育會主催의 第十七回全朝鮮綜合競技大會劍道戰은 二十五日午後一時十五分부터 本社大講堂에서 四十餘勇士가 參加한가운데열리엿다 競技가始作되기前에入場式이잇서 同大會副長 李樂遠氏의 開會辭가잇섯고 選手一同을 代表하야 朱鎬植(朝武)君의 宣誓文朗讀으로서 式을 마치고 뒤니어 審判兩軍에 나노아 開戰되엿는데 이날의 高點順位는 다음과갓다

▲第一位 鄭鎬來(朝武)四點
▲第二位 姜際均(徽文)三點
▲第三位 李重喆(朝武)三點
金淳哲(徽文)三點

加害者를取調

【漣川】지난구일심야에강화군길상면운수리(江華郡吉祥面雲水里)에서 어정지정이든 김기복(金基福)(四七)이라는 사람이 술이취하여서 길거리로 다니는것을 길상면운수리(吉祥面雲水里) 오백사십사번지에 사는유귀연(劉貴淵)(二三)이라는 사람이 중자미여서 생각하고 충고하며 한번따린것이 그자리에 쓰러저서 실신이일만에 절명된사실이잇다 그는본시 운수리에서 처자를 다리고 날품팔이로지나는데 교에도 지실하다니다가 고만술 김이 취하여 어찌할수가업서 서 처자는 어대로인지 가버리고 자귀후자 운수리서떠단니다가 바로팔월경금을 당하여서자 귀진가에서 술마시고 지나가다가 운수우편소압네거리에서전긔와가튼 사실을 당하엿는데오전한시쯤부터 넘어저 오후아홉시까지 잇는것을 술취한줄만 알고 잇는동리사람들도 이상히 엿여서 리영조라는 사람의 집에갓다뉘고 잘보호하엿다가 그이튼날피고자 유씨가 자기집에 다려다가뉘고 병치료를 해오다가 지난시월삼일오후 열시쯤되여 불행히도절명되엿것이 경찰에 알게되여 엄중히취조를 밧는중 이라고한다

僞造公債關係로 元山府又復被訴
수삼은信用組合聯合會서
興味끄는裁判結果

【元山】원산부위조공채사건(元山府僞造公債事件)은 그번인대사웅전(大社組)등보자가 현재형의집행을 밧고잇는 금일에잇서서 새상스럽히 전자에 복강현(福岡縣)에잇는 경전덕평(慶田德平)이라는사람이 동경지방재판소에 원산부를걸어 지불청구의 소송을 제긔하야 일다센세이슌을 일으키고잇스며 현재 원산부로서 도동소송중에잇는데 요지음 또다시 전긔위조공채로 말미암아 원산부에서는 피소를 당하고잇다는데 이제 그내용을보면 원고는 북강원신용조합련합회(北鮮信用組合聯合會)로서 원산부교육공채 오천원권 삼매와 일천원권 일매를 복강현무한책임대야신용조합(福岡縣無限責任大野信用組合)에서오년전에 매수하엿는데 그 부대리식을 청부하야 일만륙천륙백팔십원을 지불하라는것이라는데 이에 원산부에서는 즉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에관한 것을 토의한결과 역시 경쟁며 평과 동일한 판결입으로 응소하기로 계정하엿다는바 이외에도 동종공채가 칠천수백원이나 남어잇슴으로 원산부로서는 금후 이로써에 관하야 응소할런지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잇스며 일반은그 전개를 주목하여마지안는다고한다

青春日記

含怨한借地人 地主를亂打
平壤西城里의流血慘事

【平壤支局電話】이십사일 오전 여덟시경에 평양시내 서성리(西城里)에 신축공사중인 「마켓트」공사장에서 살인미수의 폭행사건이 낫다。

시내 진정(賑町)유곽 영업주 오경수(吳京洙)는 서성리에 넓은 긔지를 가젓고 그긔지우에는 백여호의 빈민이 집을 짓고사는데 임상섭(任商燮)(四二)도 지금그우에 집을 가진 사람의 하나이다。 그런데 원래 서성리일대에는 지주와 차지인사이가 매우 험악한 감정이잇는 곳인데 오경수도 종래에 매평 필전밧든 차지료를 별안간 칠십전에 올렷기때문에 그곳에사는 사람들은 매우곤련으로서 일반은크게주목하고잇다한다

그런데 전긔차지인 임상섭은 차지료를 오래동안 내지못한까닭에 시까와삼백원의 건물을지주 오경수에게 빼앗기엿슴으로 이내원혐을품고 지주를죽이고자 긔도 죽겟다고 별러오든임상섭은 마츰내 서성리 마켓트공사장에서 오경수를맛나자 삽으로 얼굴과 뒤통수를 함부로 찔러서 빈사의 중상을 입혓슴으로 곳 도립병원에 입원치료중이나 생명이 위독하다하며 범인 임상섭은 평양경찰서에 검속하고 엄중취조중이라한다

이는 지주대차지인사이의 종래의 감정이 폭발된것의 한례다

南昇龍君 明日에入京
關係方面에人事次

백림올림픽 마라손에 삼착으로입상하야 손군과함께 만장의 긔염을 토한 남승룡(南昇龍)군은 그동안 향리순천(順天)에서 휴양중이든바 지난이십삼일 순천을떠나 담양、광주등지를 거처 명이십륙일 오전일곱시 이십분 경성에 도착할터이라는데 입경후에는 무교정(武橋町)팔십오번지송옥려관(松屋旅館)에 투숙하며 각방면에 인사를 마치고 동경의 한창으로도라갈예정이라한다

專門學校陸上競技

(寫眞은 入場式 光景)

朝鮮專門學校體育聯盟主催의 第一回陸上競技大會는 二十五日午前九時半부터 京城運動場에서 前年度優勝校京城高商軍을 爲始하야 齒專、高工、法專、高農、京城醫專等의 六個校選手의入場이 잇슨後 前年度優勝校高商校로부터 優勝旗返還과 當番高工校主將의 宣言文朗讀이 끗나자競技는 百米豫選으로부터 開始한바 夕刊마감까지의 各校戰況은 다음과갓다

【百米豫選】▲A組 1金鐘元(齒專)一一秒四 2李英敏(高商)一一秒五 ▲B組 1田村(高工)一二秒五 2丸山(高農)一一秒 ▲C組 1朴永俊(齒專)一一秒八 2有馬(醫專)一二秒

【四百米豫選】▲A組 1向野(高商)五五秒七 2柳邦燮(齒專)五六秒 ▲B組 1昔제(高商)一分二六秒 2丸山(高農)一分二六秒 ▲C組 1張洪植(高商)一分二二秒五 2金鐘元(齒專)一分二三秒

【投砲丸決勝】1安樂植(齒專)一〇米八八 2金鐘元(同)一〇米〇五 3李春益(醫專)九米九五 4金鐘元(高商)九米七〇 5越出(同)九米六一 6大塚(高工)九米五三

【千五百米決勝】1津田(高商)四分五二秒 2柳邦燮(齒專)四分五二秒五 3王寅根(齒專) 4田尻(高農) 5閔文基(法專)6宋鎭燁(醫專)

【二百米豫選】▲A組1丸山(高農)二四秒二 2昔제(高商)二四秒二▲B組1李英敏(高商)二四秒四 2講田(高農)二四秒五▲C組1金鐘元(齒專)二三秒八 2李基順(高工)二四秒四

【走高跳】1越田(高商)一米六五 2小野(法專)一米六五 3盧聖仁(齒專)一米六五 4山本(高商)一米六五 5廣本(齒專)一米六〇 6金準弼(醫專)一米五五

【四百米繼走決勝】1齒專팀(朴永俊 金鐘元 田碼 成松)四七秒二 2高工팀四七秒三 3高商팀 4高農팀 5法專팀6醫專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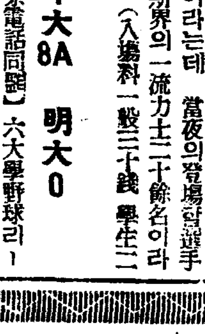
力技大會
今夜本社講堂

朝鮮體育會主催의 第十七回綜合競技力技大會는 今二十五日午後七時부터 本社大講堂에서擧行할터이라는데 當夜의登場할選手는 斯界의一流力士二十餘名이라한다 (入場料 一般三十錢 學生二十錢)

早大8A 明大0

【東京電話同盟】六大學野球리ー그…早大第二回戰은 二十五日午前十時十三分부터 神宮球場에서 明大先攻으로 開始한바 結局八A對零으로 早大再勝

明大 000000000—0
早大 00032300A—8A



天氣予報

豫報 오늘밤은 흐리고 래일아침은 개이다。京畿道全區도가튼。

昨日最高 二十度
同 最低 七度一
今朝最高 一五度四
今日正午 一九度一

日本特許局登錄濟

新案特許 淋病治療器

藥物治療에 失敗한 患者여!

조타는약을 다써보앗서도 낫지안는림질이거든 이긔게를 쓰시요 사람은 사람을 속이여도 과학(科學)은 사람을 속이지안는것입니다 과학에서나온 이긔게는 반드시당신의긔대를 저바리지안습니다

科學療法에 새로히 着眼하라

頒布代 一具 九圓二十錢 (送料實費)
(淋疾自宅治療法無代進呈 要二錢切手)

京城古市町
製造元 東邦科學興業株式會社

京城昌成町七三
發賣元 平山幸運堂
電話光(長)(二)二九一番
振替京城二三三八六六番

엄마전까지도 모두모이면 「덥다 덥다」 하드니 이제는 더위가 무엇인지 모를만큼 날이 선선해젓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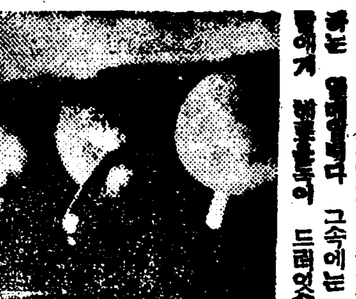
웬일인지 기운이 나는것갓고 가슴속이 서원하지요. 그리고 먹는것이 잘나려 먹어도 작구만배가 고픈것갓습니다.

이가티 마음이 상쾌하고 밥을 잘먹고 하니까 우리는 살이찌고 기운이나고 합니다.

이런때에 우리는 공부도 열심히해야됨니다. 옛날부터 가을은 글읽는 철이라고 말해옵니다 밤이길어 공부할시간이 만허젓스니까 놀때는 노라도 공부할때는 니를악물고 공부합시다.

그런데 우리는 요새에 주의하지안으면 안될일이잇습니다. 그것은 다른것이아니라 먹는것과 잠자는 것입니다. 밤이잘나리고 무엇이 작구먹고십다고 함부로 만히먹어서는 안됨니다. 너무먹어 병이나면 이때까지 어든긔운이다빼저버리지요. 그리고 밤이길다고 술대업시 오래놀지맙시다 밤늣게까지놀면 아침잠이늘고 게름뱅이될뿐더러 잠을알마치못자면 병든것과 다름업시 몸이축갑니다.

밤중에도 못난밤
굴밤딱지노리개
××××가을이되면 산중에는 이런작란도 잇답니다×××××



쭐 굴 쭐 돼지가 주어먹는 꿀밤은 사랑스러운 열매입니다 뒤산의 참나무숲에는 꿀밤이주렁주렁 동이를 버려고 내여다 봅니다 꿀밤은 불평과 가리어지못하는 열매입니다 그속에는 사람에게 해로운독이 드럿엇습니다 그러나 늣진가을이되면 마을사람들이 꿀밤 주으러산에올라갑니다 그것은 꿀밤을 주어다가 돗자리에 너러딸려 딸각딸각 소리가 나도록 말린다음 겁질을 벗겨서 물에오래동안 담어두엇다가 독물이 하나도남지안코 다빠져버린다음 그것을 절구로 찌어서 가루를 만든다음에 그가루를 가지고 떡을만드랴면 됩니다 맛이 착근하고 향긋하여 습니다 아그러지 조곰도 독이 업는 사람의 몸에도 조치안습니다 이것은 호강으로 먹는것이 아니라 몸빈궁한 가리 남도에서 수해가 바고 곡식과집이 물에 떠나간다음 몸만남아잇는 사람들이 먹을곡식이 업습으로 이것을 주어서 떡을 만드러 먹습니다

꿀밤 딱지는 거죽이 꺼칠꺼칠하고 속이 반들반들하야 사랑스러운 그릇갓습니다 전일보름날 거름더미에 만드러세운오곡을 동리아해들이 도라다니며 노래를 부르면서 타작을 하야 그것을 태워 재가나면 이꿀밤딱지로 한말두말 소리를 노래

×童話×
대추총알
任元鎬

어느해 느진가을철, 누엿누엿 넘어가는 저녁 해어름에 단풍닙 곱게물든 산속길로 포수영감님 한분이 훌훌쳐거름, 서룽서룽 떼업시 거닐며오고 잇섯습니다. 포수영감님이 어넣은 재수가글러 산시새한마리도 잡지못하고 비이방례, 비인손으로 허덕허덕 집칫처가는길이엇습니다.

얼마동안 걸어나려오다가 기운은 다하고, 다리는 아프고, 잔디바테 털퍽 주저안젓습니다.

「이거, 별꼴아닌가? 그저빈손으로 가다니―」

이러케 혼자말로 중얼거리며 아픈다리 쉬이노라 담배한대 피실때, 후유―긴한숨석거 뿜어내는 새―하얀 담배연기 뭉어뱅뱅……눈아패다·똥그래미 그리며 하늘로 사려집니다. 사방이 출만 햇습니다.

넉어시 안저 저건너편 바라보고만 잇노라니 담배연기 가물대는 틈넘어로 바라다 보이는 건너편언덕 다박솔미테 그무엇 쭈그리고 잇는게 보엿습니다. 연기를 후―불어버리고 똑똑이 건너다보니,

「이거 웬?」

커―드란 사슴이엇습니다. 사슴이는 졸고잇노라 누가 오는지 가는지 다―모르고 혼저안저 끄떡끄떡 또끄떡……넘어가는 햇볏체 포근이 잠이든모양 이엇습니다.

「그러믄 그럿치 거저가랴 벌잇나」

이때라 포수영감님은 억, 칭찬번 꿀떡생키고 가마니살작 총알들어잇을 재우려햇습니다. 그런데 맹낭하게도 어데다란 총알이 하나도남지를 안핫습니다. 원중일허 방뜻노라 다나가고 빈총뿐이엇습니다.

고만에 어쩌지를 몰라서 뒤적지를 하다가 주머니속에 손을너허보앗습니다. 하지만 주머니속에 총알이 잇슬리업고 다만다만 한구멍이에 먹다남은 대추한개가 잇슬뿐이엇습니다.

「에―라 될수업다 이거래두……」

포수영감님은 대추알을재워서 사슴이의 머리를 겨누고 한대 조앗습니다. 탕! 요란하게 울리는 총소리에 사슴이는 펄쩍 재주한번 넘더니 마젓는지 안마젓는지 고대루 줄다름 꼬부랑 저편 언덕길로 다러나버리고 말엇습니다.

○

그이듬해 이듬봄철, 어느날 포수영감님은 오래간만에 또다시 사냥을 나섯습니다. 하얀 하얀 실안개 울려낀 산골길로 봉봉 쌀 구경삼어 이리저리, 저리어리, 돌어다닐제 가는길 마즌편 산모루에서

「메―메―」

하고 사슴이 우는소리가 슬프게 들렷습니다.

여러해를 두고두고 사냥질에 손닉어 온갓 즘생소리 잘알어듯는 포수영감님은 단거름에 사슴의소리 나는곳으로 빨러가습니다. 가보니 욱어진 떨프사리속에 꼭처박혀 꼼짝못하는 사슴이 한마리, 그리고 그뒤엔 무서운 무서운 알룩호랑이가 한마리, 송한엄굴에 어흥을 어르고 들어덤비는 판이엇습니다.

「이놈! 멋저엘헤 놈들……」

포수영감님은 겁을추부리를 손날세게 호랑이에게로 돌려대고 방아쇠를당기엇습니다 탕! 나가는 총소리 총알은 날래가 호랑이 머리에 똑바루 마진모양 어흥! 호랑이는 그자리에 쓰러지 버렷습니다.

그래고 도대 총알을 재울때어느듯 사슴이는 업크러진 떨풀사리를 트러헤치고 세상에 둘업는 원수의 포수인것을 그래두 고마운 은인이라고 영감님아프로 달려들엇습니다. 암만암만 사냥질을 일삼는 포수기로니이 모양엔 마음이 돌아서지안을수업서 가엽슨 마음에 총을못노코 그대로 어루만저 봣구야 말엇습니다.

어루만지며 디려다보니참 별로 어상한것은 사슴이머리우에 대추나무가 한그루 봄바람에 뾰족뾰족 새움이 도덧습니다.

「이거바라 별일이구나!」

만저보고 디려다보고 한참 궁리하다가 지난간 가을의 생각낫습니다. 빈손으로 돌어오든 그날 총알 업서 떼려저 대추총알을 재여가지고 「탕!」 노은일이 생각낫습니다.

정말 그날의 그 대추총알이 날려가 바히여 짝이 들것입니다. 그뒤로 사슴의 머리우에 대추나무는 싱싱하게 자라서 그때부터엔 주렁주렁 대추도 열엿드랍니다. 그래돗것이 세월어가고 사슴이는 대대로 새끼를치고 그때저때 그동안 차차 쿼 변해서 오늘날엔 사슴들의 뿔이되엇다나요 (鄕土童話)

―丙子 十月十四日 영등포에서―

여러분 놀라운
신문지의 힘
한번 시험 해 보십시요

책상우에 신문지 한장을 펴십시요. 그리고 그신문미테 폭이 약간 넓은 널판대기를 하나를 깔되 한쪽을 책상모사리 박그로 걸처노은듯이 쭉 나오게합니다 그리고나서는 연필굵기만한 나무때기를 가지고 그널판자를 때려보십시요 금방 툭 튀어 떠러질것갓지요. 그러나 여간해서 떠러지지를안어요 신문지 무게가 그리케 무거울리도 업는데 이상하다 이상하다하면서 누구나 한번놀래고말것입니다.

가엽슨흰쥐와
간악한뱀

1、조그마한흰쥐는 뱀이아주 맘씨고약한놈인줄은 몰랏습니다 그래서 동무를만알고 가티히갓습니다

2、그러나 뱀은목을 오므리고 「안녕하쇼 우리가티노라요」 허비티면서 드른체만체하고 이섯습니다。「가티안놀면 할수업지」 이러케 생각한쥐는 다른데로 조르르갈랴고햇습니다

3、「가만잇서 가만잇서 언제가티놀라구햇는데 왜가니」 뱀은이러케말하고 슬슬스럽게 우스면서 그길다란목을 빼첫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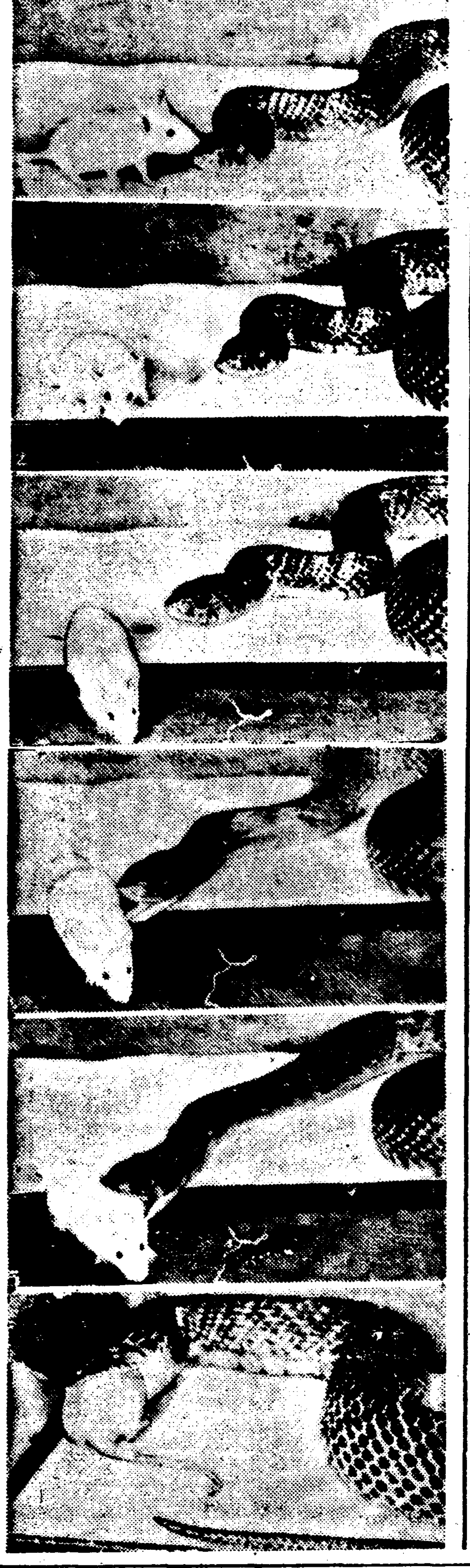
4、흰쥐는 뱀의하는짓이 엄이지겁이낫습니다。그래서 핑계상아 그만두어 가리안노라고 와노하고 다러날라고햇습니다

5、그때입니다 벌서 따라갈때는 노갓습니다。

6、흰쥐의머리가 뱀의 아가리속으로 드러갓습니다。그리고 엄마뒤에는 꼬리까지 보이지안케되엿습니다。그제서야 간악한 뱀은 「아이아이 아푸다아」 너흰쥐는 엇던게 소리첫습니다。 엇지배가부른듯햇습니다。

재미잇는
리과실험

꿀부에 더운물을 너코 손바닥으로 꿀부주둥이를 꼭눌러서 막은뒤에 그꿀부를가저다가 바께쓰에 당어둔냉수속에 너허보십시요 꿀부의더운물이 식으면 손바닥이 떠러지지안코 꿀부주둥이에 딱붙습니다 더운물을너헛슬때의 꿀부속공긔는 팽창하야 잇엇스나 그물이 식어지는데 따라 꿀부속 공긔는 줄어듭니다 이러케 줄어드는 공긔가 손바닥을 끌어단이는 까닭에 떠러지지안코 부터잇게 되는것입니다



라디오

二十五日 （日曜）

◇午後六時 〝어린이映畫이야기〟 成東鎬 〝가을조日날〟

◇六時二五分 心田開發講演 盧基南

◇同七時三〇分 洋樂

朝鮮日報社主催全朝鮮音樂競演大會入賞者

◇同八時 執杖歌外 一、執杖歌 二、달거리 三、小春香歌 四、平壤歌 唱 申花中仙 鼓 韓成俊

◇同八時三〇分 劇本朗讀〝第三者〟 宋在魯

◇同九時 音樂 一、鄕愁交奏

二、井邑 鼓 金李金鎭 一鄕一等 伽倻琴 大笒 金桂錫石 洋琴

◇同一〇時 朝鮮交換放送（京城으로부터） 農夫歌 一、김매는소리(西鮮地方) 二、農夫歌(南鮮地方) 崔應子 張太弘 吳太石 丁南希 ……

二十六日 （月曜）

◇午後〇時五分 吉談「吹笛山中외夫婦」 白岳

◇同一時一五分 婦人時間「流行에나타난現代女性」 尹柏南

◇同二時四〇分 (東) 伊藤博文公國葬儀式實況—新繳經講座

◇同六時 兒童劇「외지엇는애—마—로」 原作(エ) (鄭英和脚色)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外十六名 新興兒童 淸田 鄭英淑 劇劇 姜洪 奏樂 宋榮徹 指揮 柳基興

◇同六時三〇分 經濟解說 洪性夏

◇同七時三〇分 常識講座 總督府事務官 宋 漢 道

◇同八時 伽倻琴散調와併唱 一、散調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二、併唱 (가)短歌…滄浪歌 (나)唱劇調…赤壁歌 鼓手 丁 元 姜 太 鎭 弘 外

◇同八時三〇分 秋風感別曲 一、秋風感別曲 二、孔明歌 三、寒溪歌 四、山念佛 白 牧 丹 鄭 錦 紅

◇同九時 (大) 吹奏樂—桃谷 演奏所로부터中繼— 一、軍艦行進曲 瀨戶口藤吉作曲 二、大行進曲「正正堂堂한軍容」엘거—作曲 三、序曲 오베론 웨—버—作曲 四、觀艦式行進曲 齊唱付 池田敏之助作調 佐藤淸吉作曲 聯合艦隊司令部付軍樂隊 指揮 山崎藤得

二十七日 （火曜）

◇午前一〇時一〇分(大)幼兒의時間

◇午後〇時五分 맨돌린合奏 一、엔레르존의追憶하야…무니에트作曲 二、가봇트…빠하作曲 三、바풀리의追憶…메싸카포作曲 四、작난감의紳士…모리시다作曲 高橋맨돌린앙상블

◇同一時一五分 婦人時間〝忍耐는平和의根本〟 宋今璇

◇同六時 橫笛獨奏 一、菊花……아이란드作曲 二、자장가……슈베르트作曲 三、트라으메라이…슈—망作曲 四、세레나—데…슈베르트作曲 五、세레나—데……드리고作曲 六、솔베이지의노래…… 그리—그作曲 伴奏 鄭德潤 金吉洪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經濟解說 吳基先

◇同七時三〇分 講演「科學者의꿈」、培花女高 李萬珪

◇同八時 漫談 一、오래사는법 二、올다가도우슴일實 材景 漫談의밤

◇八時四〇分 하와이안·기타와우쿠렐레 一、양산도 二、방아타령 三、타령 張明浩 張鼎波

◇同八時五〇分 漫談 一、거즌말俱樂部 二、안해와敎科書 申不出

第一放送

◇午前一〇時三〇分 (東)家庭講座

◇午後〇時五分 講談

◇同二時 常識講座

◇同六時 (東)少年音樂講座

◇同六時二五分 趣味講演

◇同七時三〇分 (東)講演

◇同八時 (大)歌謠曲과女聲合唱

◇同八時二五分 琵琶

◇同八時五〇分 舞臺劇

✶曆✶

十月廿六日 (月)

舊戊氏九月大(十二日)

辛巳·金·危·危

●宗祀嫁娶移徙栽衣上樑午時納財에宜함

●霜降二十三日(初九日)

●立冬七日(第二十四日)

洋服
毛織物本場から直賣

大衆的大提供

世界一廉價、製造都市の名古屋製品、自家工場で製造し直賣 大産—大販—市價—の半値

必らず小賣市價の半値以下、絕對責任付、不向返金、品替自由

特製、實用向、羅紗オーバ

紳士向、ウーステッド地、背廣洋服

本年流行ノ紳柄純毛製色ハ茶、中柄等アリ、年齡及色目御指定アレバ見計ヒ御送附致シマス

上品　ウーステッド地ニアルパカ總裹付　三ツ揃一着　金十六圓五十錢

特製　◎特上ウーステッドニ本絹朱子總裹付　三ツ揃一着　金十九圓

土用ウーステッド地最新柄濃茶、紺色等ニテ小柄、大柄

紳士向、最新ピツケ地、背廣洋服

高級純毛製ニテ斜線入リ中年紳士向最新品ナリ裏ハ高級本製アルパカ裏ニテ耐久無比本絹袖裏付

三ツ揃一着　金十八圓五十錢

特選高級品

紳士用、メルトン地、背廣洋服

羅紗メルトン無地、紺、黑、茶

上品　三ツ揃一着　金十二圓

特品　三ツ揃一着　金十五圓

縞スコッチ地、背廣洋服

青年、中年向ニテ

裏ハアルパカ總裏付極上等冬向紳士用ナリ

青年 中年向

三ツ揃一着　特價 金十四圓

冬向背廣、サージ洋服

紺ト黑ト有リ 仕立入念丈夫向一般用ナリ

背廣 高級品 三ツ揃 金十八圓

詰エリ特品　九圓八十錢

詰エリ上品　七圓

三ツ揃特品　十二圓五十錢

紳士用 トンビ

本ラクダ地 一枚 金十四圓

高級ラクダ地 一枚 金二十三圓

生地ハ本ラクダ本絹朱子總裏付キ

本ロスキン地 一枚 金十九圓

高級品ニテ極上ロスキン地ニテ本絹朱子總裏付キ市價三十圓以上ノ品ナリ何レモ鯨尺三尺三寸、三尺四寸、三尺五寸、三尺六寸同値身長御通知下サイ

實用向

紳士用、羅紗メルトンオーバ

生地ハ極厚地上等羅紗ニテ裏ハ新毛朱子上等袖裏絹朱子極メテ丈夫向大好評ナリ市價十円以上ノ品ナリ

色合　黑、紺、茶

二尺八寸　二尺九寸　三尺

片前型　金五圓五十錢

兩前型　金五圓九十錢

紳士用、羅紗 メルトン オーバ

生地ハ極上裏絹朱子付キ仕最新型ナリ

色合　紺、黑、茶

二尺八寸　二尺九寸　三尺

片前型　金七圓八十錢

兩前型　金八圓二十錢

等メルトンニテ洋朱子總裏付袖立入念附圖品別品付キ紳士用ノ

高級霜降新型オーバ

高級品ニテ純毛杉織ニ新柄無地色ハ鼠、薄茶等アリ御指定下サイ

生地ハ上等ベロアー霜降ニテ裏ハ絹朱子ニテ袖裏絹縞朱子仕立ハ高等職人ノ謹向仕立ナリ

色目霜降、杉柄茶、鼠

二尺七寸　二尺八寸　片前型 同値 金十四圓

二尺九寸　三尺一寸　兩前型 同値 金十五圓

最高級 ラクダ オーバ

生地ハ絹縞朱子仕

上等ラクダニテ裏ハ本絹朱子袖裏本立ハ高等職人ノ謹向仕立ナリ

色合　紺黑

二尺八寸　二尺九寸　三尺

片前型　同値　金十八圓

兩前型　同値　金十九圓

高級ベロアー、オーバ

生地ハ上等ベロアーニテ裏ハ絹朱子ニ袖裏ハ絹朱子ノ高級仕立ナリ一見三四十円ノ高級品ナリ

色合　黑紺

二尺八寸　二尺九寸　三尺一寸

片前型　同値　金十三圓八十錢

兩前型　同値　金十四圓八十錢

オーバ襟毛附ハ一着ニ付三圓八十錢高値

大衆向ダランド羅紗オーバ

生地極厚付最新型ハ鼠、茶

地上等スコッチ羅紗ニテ、バンド仕立入念大衆向ノ實用品ナリ、色壽茶ト杉柄トアリ流行品

丈鯨尺　二尺、三尺二寸

一枚　兩前　金四圓八十錢

郵書一枚로發送出荷迅速廿四時間主義

註文은=券書로申込하십시오便宜上代金引換으로發荷함

絕對保證=品質耐久絕對保險바드시이地方小賣價格의半價以下

換品返金=合意치안는것은換品返金自由絕對適應이업습니다

送料實費=는買主負擔합겻荷送費는當店負擔한다

革命的大廉賣를꼭一次利用하십시오

名古屋市東區千種町（古井坂電停前）

合資會社 金城商會販賣部

製造元直販

電話東五二一四番

振替名古屋一一七六

平壤府民들의宿願 第二人道橋實現

工費三百萬圓으로三年繼續 明年부터着工決定

【平壤】 평양부민의 다년간 현안으로 되여잇든 제이인도교(第二人道橋)는 명년도부터 삼개년 계속사업으로 공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하고 총독부에서는 공사비의 삼분의일인 백만원의 보조를 삼개년간에 지출하기로되엿다

평양부로서는 도지방비에 대하여서도 보조금의 지출을희망하고잇스나 도로서는 비교적충분한 재력을 가지고잇는 부에 대하여 빈약한 지방비에서 보조를 지출할수업다는 견지에서 제이인도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출하지안키로 되엿다

그러나 도에서 보조가 업다면 보조는 총독부의 보조금 백만원 외의 이백만원 전부를 부담하지 안흐면 안되게 되여 그부담방법에 대하여서는 시야(矢野)신부윤이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되겟거니와 결국삼분의일인 백만원은 순전히 부부담으로되고 남어지삼분의일 백만원은 수익자(受益者)부담으로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이안일가? 해서도되나 부와수익자의 부담할이백만원은 위선 부에서기채하고 수익자부담의 백만원은 십개년내지 십오개년에 난호아 제이인도교량측의 일정한 구역에 특별부과를하여 징수할 의향을 가지고잇다한다

臨時郡守會開催 災民救濟討議

【順川】 이십일일에열린 산업진흥전람회에 각군수전부가 참석하얏는데 도당국에서는 이를리용하야 림시군수회의를 당일오후한시부터 지사실에서열고 전도적으로 피해를입은 도열병(稻熱病)의 피해상황을 들은후 각군에 대하여 요망이 잇섯다는데 도당국에서는 피해상황의 조사를 참작하야 리재민구제에대한 적극적대책을 강구하리라한다

水產界에大異常 怪物鰮工船出現

原始漁業에는一層威脅으로 群小業者에致命傷

【淸津】 북과수년동안에 모든산업부문(產業部門)에 급격한 변혁을 이르키고잇는 함경도(咸鏡道) 지방 그중에도 특히 어업(漁業)에 잇서서는 그어획방법(漁獲方法)으로나 가공방법(加工方法)으로 종래의원시적(原始的) 방법을 탈피하고잇서 수십만의어민과 바다와의관계가 고르지못한 요사이 이수심(愁心)과는 정반대로 정어리공선(鰮工船)이라는 괴물이 나타나 어업과수산가공업(水產加工業)을 동시에 바다우에서수행할 시대가오리라한다

건착망(巾着網)이 정어리잡이의 주인공으로나오자 어선대신으로 발동선이 출현하엿스며 심해면 수십리에 원양작업(遠洋作業)을하게되는관계로 어획물의 운반(運搬)에 필요하는 시간과 로력을 업새고 바다에서 배를 띄우고온유(鰮油)와 "비료(肥料)"를 제조하게되엿다한다 이번 그제일착으로 함남연안에는 간이공선(簡易鰮工船)이 나타낫는데 한함북대에 온공선이 나타나 수산업에 일대변혁을 이르키리라는 동시에 원시적 군소업자에게는 치명상이라한다

秋收期에債權者跋扈 支拂命令狀沙汰

統營支廳에二百餘件

【統營】 통영지방은 거번풍수해의 참변에 농작물은 구할이상의 피해를 입엇고 해상작업과 일반상공계는 작업을중단하고 전혀 휴업상태에잇는중 이중은 채권자들의 등쌀에 더욱살수가업다한다 지난이십삼일 까지 통영지청관할리 사무소에드러온 지불명령장만 벌서 이백구십건을 돌파하얏다는데 이건수가 처리될때 파연백여호의 농가는 파산의 운명에 당면할것으로 인심은 극히 흉흉한가운데잇다한다

竹葉簡易學校 新築落成式擧行

【長湍】 경기도장단군 진남면(津南面)죽엽리(竹葉里)에 간이학교(竹葉簡易學校)는 지난구월삼일에 개교한이래 교사가 협착하야 불편한점이 불소하든바 면내유지는 이에 느낀바잇서 교사신축비를 기부하야 공비 일천오백여원으로 신축을마치고 지난이십일오전십시부터 동교에서 신축락성식을 관민수백여명의 다수열석하에 면장오진근(吳震根)씨의 사회하에 성대히거행 리성호(李聖浩)씨의공사보고와 최(崔)장단군수의 고사가잇슨후 래빈축사로 야구(野口)농작부장교장의 축사로 식을마치고 계속하야 그네경운동회를 성대히 맛첫다는데 동교신축비로 자진 기부한분의 씨명은 다음과갓다

李禎秀 一千圓 金基元 三百圓 朱錫萬百五十圓 林杜成 吳禮根 張基享各五十圓式 以下省略

居昌地方牛疫猖獗 千餘頭感染呻吟

秋耕農家에打擊

【居昌】 경남거창(居昌)에서는전예보지못한 농우의 류행성감기가 경북지방으로부터 연파되엿것이라하야 방금거창군내일원에 분포하는 농우가일로 일천여두에 달하고잇슴으로 군당국은 조합(郡畜產組合)에서는 그처리에분망중이라는바 그중에서도 가조(加祚) 가북(加北) 남상(南上) 남하(南下) 웅양(熊陽) 위천(渭川)면이 가장혹심하다하야 추경기에 직면한 일반농가에서는 미완수미를 맛지못하는중 인심은 극히소란한중에잇다한다

假醫師醫生征伐 管內各署에嚴達

【平壤】 평남도위생과에서는가짜의사와 가짜의생을 철저히취체하라는 명령을 관내각서에 엄달햇다 이까닭은 최근의사와의생으로 꾸민후 환자를 진찰하고치료를하여 정말의사와 의생보다커다란 간판을달고 야단을하기때문이데 한편에 불충한축업을하는 사람들의 수효도 적지안케된것이다

그리고 개인의과도 불성의도 가짜의사나 의생은 편의의눈을 피하여 장기간 영업을하고잇는 현상이므로 철저한취체를 하기로 되엿다는 람용한치료를 경게하기로되엿는데 최근순안읍내(順安邑內) 모병원에서 조수의실책으로 연출한 의원하주사사건등이 잇슴에 비치워 주사사용문제등에 대해서도 엄중한 취체를하기로 되엿다한다

二時間의停電으로 需要者受損莫大

電源이면關係로原因조차未詳 火力發電必要를痛感

【平壤】 이십사일 오후여섯시이십분부터 평양시내 전부에 대정전이 생기어 일대소동과아울러 막대한손해를 밧고마럿다 정전된시간이 저녁을 만들하고 수백개의 대소공장 가연극장 야업(夜業)에 착수하고 연극 영화 『메파』는 관상점등에서는 야업가 시작되고 물품판매가 가장 밧부게되엿슬때에 두시간동안이나 대련전을 보게되여 그손해의 막대하고 그소동이 평장히 하는 상상키에 충분 하거니와 다

이제 평양에 전기사업이 시작된이래 처음보는일인데정전의 리유를드르니 장진강 수력 전기의 발전소에서 고장이 생긴까닭이라고도하고 송전선(送電線)의 고장이라고도하여 판명되지안핫스나 어쨋든 수전을위해 송전구역인 서선일대와 경기도의 일부까지 정전되엿든것이다

평양부민전부가 평양 원문제(電源問題)를 절더리하게 잇는 수전에서구할은의외정전만한 일이므로 화력발전(火力發電)에 매진하자고 주장하는리유도 금번과가튼 대정전의광파를보아추분히 인식할수잇는것이라하여판명 거당국에향하여 쪽발하는 수력 전기반대의 소리가 극히높하지고잇다

卅餘戶移住災民에 國有林禁耕嚴令

惠山營林署當局에서

【咸興】 함남 삼수군 개운성(三水郡開雲城)에 이주식힌 수해리재민 삼십여호는 동면 금년봄에 혜산영림서(營林署)에서 국유림야(國有林野)의 경작을 금지시켜서 일조에 살길을 일코 비상히 곤경가운데 잇다고한다

그들은 지난 소화삼년도의 관북대수해때 경지가 류실(流失)되여 살길을 일코서 헤매이든 재민들로서 이주후에도 경지의부족 그 저 후관계등원인으로서 그반년 서 타처로 재류리하야 가고서 에오우라지오십여호만남어 겨우 화전을개간경작하야 살아오든터인대 금번봄 영림서에서 전부 전민에게 경작지를 도로준다는 리유로서 유일한 생명가치녀이고잇든 국유림야 십일정보의경작을금지식혓다고하는데 이르말미암아 그중사십여호의 이주민(移住民)들은 극도의경지난에빠저 생활의위협을받고잇다고한다

災害影響으로 徵稅成績不良

【全州】 전북도내 부군읍면(府郡邑面)의 징세기(徵稅期)는 금월이라는데 풍수해와 도열병으로 농가의피해가 심한만큼 징세성적에도 상당한 영향이 밋치리라하며 이십일현재의 각부군(各府郡)에서 도달한보고를 종합하면 다음과 갓다한다

◇戶別稅
調定額 一〇七、九七五
收入額 四七、一〇五
收入步合 四割六三(比昨年二割四六減)

◇家屋稅
調定額 六六、六四八
收入額 二五、六一七
收入步合 三割八四(新設)

◇車輛稅
調定額 二七、一一九
收入額 八、五七七
收入步合 三割一六(比昨年 一割二二減)

洋裁縫講習盛況

本報開城支局後援

【開城】 부내 고려녀자관 부인구락부(高麗女子館婦人俱樂部)주최와 본보개성지국후원아래 개최된 양재봉강습회(洋裁縫講習會)는 예정과가티 지난십구일부터 이십사일까지 륙일간을 두고 매일오전구시부터 부내 북부례배당(北部禮拜堂)에서 리제학강사의 교시아래 개최되엿는데 이어서 동일오후시에는동 강습생, 제작품, 품평회까지 개최하야 그중우량품을 뽑아서 수상하게되엿다한다

(授賞者氏名)

▲一等 馬元玉 ▲二等 韓今孫 ▲三等 宣漢和

地方人事

▲高橋敏氏(朝鮮總督府事務官)新京에赴任人事次 本社平壤支局來訪

▲潘泰浩氏(平壤音樂協會委員長)新任人事次同上

▲金永石氏(同)同上

▲李敬革(定州實業家)氏李喜寶(孃)의結婚式을 去二十四日定州邑禮拜堂에서擧行

▲森岡清治氏(前瑞興刑務所長)瑞山刑務所長榮轉人事次本報瑞興支局來訪

▲李宗玉氏(前瑞興電氣散宿所長)谷山電氣散宿所長榮轉人事次同上

▲鍾千孫氏(瑞興電氣散宿所長)新任人事次同上

▲高橋榮次氏(英陵警察署長)赴任人事次本報瑞興支局來訪

佛敎協會代議員會

【大邱】 경북불교협회(佛敎協會)는 제일회정기대의원회(代議員會)를 지난시월이십일 오전열시부터대구덕산정동화사포교당(桐華寺布敎堂)에서 경북도내 오본산 대사의(住持布敎師)로된 이십팔명과 의원십여명 합 삼십여명의출석아래열려 협회회규(協會會規) 일부의개정과 회칙개정등을 토의하엿는바 예산결의 제토의에들어가자 대의원간에의견의 대립이생겨 일시는파란을 일으켯스나 결국의원회등의 강경한주장이 통과되엿다

주경북불교협회는 금년이월에 창립된것인바 동회에서 결의된 제반회규가 각사찰에 실시되지못하고 다만불교협회의 간판만이 잇슬뿐이엿슴으로 이번의회에서 간부들의 기관을 갓추고 각사찰의 감찰을 의원회에서 할것이라는 것을 결정하여 금번 의원회에 제안되엿든것이라고하며 선정된 간부는 다음과같다고한다

平壤音樂協會誕生

【平壤】 음악을생명으로하고 『뮤-직』취미에살고잇는 권위잇는악인 더욱이 젊은이상의교유을바든사람십삼명을중심으로 다시취미가진동호등까지 합하여 이십명이 한덩어리가되여 평양음악협회(平壤音樂協會)를 조직한후 반태호(潘泰浩)씨를 의원장으로 추대하다한다

그리하여 발회식을 이십일일 오후다섯시부터 화신식당(和信食堂)에서 거행하기로되엿다

이음악협회의 활동을 우리는 크게측망하거니와 음악회의공개 저명음악가의 초빙공연등 각방면의 씩씩한활동이 잇스리라하니 아프로의 건전한발전을 비는바이다

高城署員猛活動 紳士賭博團打盡

其中面職員等도介在

【高城】 강원도 고성경찰서관내 간성오대(杆城五臺)방면을 중심으로신사대도박(紳士大賭博)사건이잇서 이를탐지한 고성경찰서에는 김형사부장(金刑事部長)이 활약하여 연루자 십칠명을 일망타진하엿슴으로 동서홍사법주임(洪司法主任)은 엄중한 취조를하고잇는 중이며 그들은신원이 확실한지방 유산가급 공직자등이니만치 특별한 처분으로 검속은하지 아니하엿는데 그중에는 모(某)면회계원 모(某)금조서기며 철도역원 등도잇슴으로 일반은 그사건의전개여하를 주시중이라한다

郵所設置運動

大光里驛前에서

【鐵原】 경원선 대광리역전은근래에와서 현저한발전을 보이고잇스며 현재호수는 일백팔십여호인데 일즉부터 관설우편소를 설치하야달라는 시민의간절한요망이잇섯는데 체신국에서는 지대조사를한결과 아즉 관설우편소는설치할수업다하므로 이여서 지난이십일에 당지 조부성(趙富成)씨는사설우편소설치원서를 원산우편국과체신국에 제출하얏는데대당지는 숙안에걸여잇는 철원개성(鐵原開城)간철도시설이 실현된다면 경원선과의연접지로 되게되는관계로 우편소의설치는극히 필요한일이라고 일반은 퍽히망중이라고한다

新興商會에落雷

被害二千餘圓

【新義州】 지난 이십사일 오전세시반쯤 부내 영정(榮町)신흥상회(新興商會)에 "벼락"이떠러저 동상점 일부를 소실하얏는데 손해는 약이천여원가량에달한다고한다

災害地小作料減免 各地主에게通告

井邑郡警兩當局서

【井邑】 금번에입은풍수해재해로 도열병까지 만연되여서 정읍지방농작물은 전멸상태에 잇다는 것은 이미지상에 보도한바이어니와 각지주들은 재해의시기를 당하여서 무리한 소작료를 징수하야 농민들을 원통케 하는일이 적지안흔것을 우려하고 장래에소작쟁의를 이르킬념려가 잇슬것은 명약관화함으로 정읍경찰서(井邑警察署)와 정읍군청(井邑郡廳)에서는 지난이십일에 각면에 산재하여잇는 각지주들에게 수확예상을 참작하야 소작료를 감면하여 달라고 통첩을 발하엿다는데 소작료(小作料) 면제또는 감면으로 도조를 밧지못할경우에는 매석두에 백일이상은 초과하지못하도록 부탁하엿다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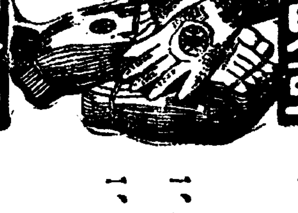
鐵原地方에雨雹

【鐵原】 철원지방일대에는 이십사일오후두시부터갑자기흐리드니 뇌성벽력과 때때로 폭우가나리드니 약한시간동안 우박과폭우가 나리엿는데 철원지방에는 벌서 추수가 끗난때라 농작물의피해는 별로업지안타고한다

生〇男强健化 不老長壽藥

伊藤先生推獎 醫學博士

東亞軍手製造家募集



一、製品宣傳
東亞手袋工場
京城府黃金町七丁目四番地
電話本局②五九五七番・振替京城一四五七一番

濕布에 エキホス

包裝 一〇〇瓦 二五〇瓦 五〇〇瓦 二瓩

注意 近日類似粗惡品이多數잇사오니 購入時에 「エキホス」라고指名하시압

A-8

淋疾 蔘茸五淋錠

藥價 一圓 三圓七十錢
咸興府大和町三丁目 朝鮮靈藥研究所

各種信託 低利貸出 迅速有利
朝鮮信託株式會社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十九番地
社長 谷多喜磨
支店所在地 群山、釜山、木浦、平壤、大邱

ヤナギ アンチフラミン

ANTIPHLAMINE WILLOW

肺炎 肺尖カタル 新治療劑！

消炎・鎭痛・理想的新巴布劑

アンチフラミン「ヤナギ」

アンチフラミン「ヤナギ」는消炎・鎭痛・滲出液吸收・新陳代謝促進・充血及疼痛輕減・血壓降下・血液循環好轉・毒素排除等 作用迅速及的確에依하야

肺炎・肺尖カタル・インフルエンザ
肋膜炎・關節炎等에適用해서鎭痛
消炎作用을奏하며優秀한治療的効果를呈함。

アンチフラミン「ヤナギ」는 從來使用의巴布劑에比하야 効果의迅速的確은勿論 皮膚呼吸을 妨害치안코 使用時 加熱或은 リント布使用等의煩弊無하며 副作用皆無 持續性이有하고 使用後處理簡便하며 用量極少量임으로 最經濟的인 諸特長을有함。

アンチフラミン 製造發賣元
株式會社 柳韓洋行
京城・大連・上海

包裝		
20瓦	¥0・60
60瓦	1・00
500瓦	4・50

全國有名藥房에서販賣 文獻請求卽時送呈

熱을同伴하는 기침에 (달고 먹기쉬운 푸운 劑) コデチン

藥價 三十錢 一圓五十錢 藥店에잇다

コントロール・ミシン

代表的國產 十五種 蛇ノ目ミシンの嚆矢

一郡一店 代理店募集
朝鮮總代理店 楠商店
京城本町二丁目二十七番地

世界的發明空氣銃新案特許 米國專賣特許出願中

總打機 空氣銃 製繩機 製叺機 稻扱機
朝鮮黃海道載寧邑
合名會社 利善工場
電話一〇九番 振替京城一四七六番

新養毛料 ワカミヅ
井上喜三郎先生創製
講談社發賣

醫師試驗準備書

新職業 電氣醫療師養成

時代的電氣 醫療學全科
特別臨時講習
朝鮮高等電醫講習院
京城府黃金町三ノ三四四

內容規定 無代呈書